

강진군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 가속도

중투심사 통과...옛 성화대 리모델링해 활성화 추진 4차 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인구감소 위기 해소

폐교된 성화대 리모델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거점 기지를 구축하는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2012년 폐교 이후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옛 성화대 부지를 매입해 공간 혁신 및 4차 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30억원(도비 200억원, 군비 130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9월 강진군 자체 예산으로 약 23㎡(7만평)의 부지와 8개동의 건물로 구성된 옛 성화대의 재산을 모두 매입했다.

강진군은 옛 성화대의 유휴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해 강진만의 차별화된 문화

와 4차 산업 기술을 융합해 교육 및 문화,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실감미디어콘텐츠 체험관 구축, 드론산업 혁신밸리 조성 등을 통해 생활형 정주 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초 관리계획시(학교)해지 입안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 절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옛 성화대 캠퍼스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기업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국립목포대와 연계,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진에서 창업하고, 강진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옛 성화대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적기 착공,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와 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지방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고자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강진군이 옛 성화대를 리모델링해 청년 글로벌 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옛 성화대 부지. (강진군 제공)

“근로자 편의 확충” 영광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범 운영

열린카페·작은도서관·체력단련실 등...내년 2월 정식 개관

영광군은 “최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한 대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마산업단지 내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54억원(국비 28억원, 도비 9억원, 군비 17억원)이 투입돼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어진 시설로, 지난 7월 BF 본인증을 마치고 센터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부 공간을 정비해왔다.

지상 2층의 연면적 1천611㎡(약480

평) 규모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휴게실과 열린카페, 역량강화실 및 작은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컴퓨터 공간 등을 포함하고 동시에 다목적강당과 체력단련실 등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복합문화센터 1층에는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근로자휴게실(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운영사무실 ▲열린카페 ▲회의실 ▲동아리방이 들어선다. 2층은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모여있는 공간



으로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역량강화실을 갖췄다.

다목적강당에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강연의 개최가 가능하며 배드민턴과 탁구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싸이클, 스미스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통해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구

성했다. 역량강화실에서는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근로자·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영광군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운영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한 후 오는 2월부터 센터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산업단지의 근로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문화센터 활성화로 대마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해남공룡박물관 “알로사우루스가 깨어났다”

높이 10m 대형 LED 스크린 실감영상 설치

해남공룡박물관에 쥐라기 육식공룡의 대표인 알로사우루스 공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영상전시 시설이 설치됐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공룡박물관 지하 1층 시대별 공룡실에 구축한 디지털 전시 공간은 알로사우루스 화석 진열장 옆에 설치돼 화석과 영상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알로사우루스 화석은 국내 유일한 진품 골격 화석으로 전시실 내 공룡 화석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전시물로 꼽히고 있다.

가로 5m, 높이 10m 크기의 LED 스크린은 호남 권역의 박물관에서는 최대 규모로 편당 5분 내외의 몰입도 있는 디지털 영상 3편을 상영해 관람객들이 알로사우루스가 살았던 공룡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된 진품 화석 바로 앞에서 되살아나는 알로사우루스를 만날 수 있으며,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초식공룡과 벌었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연의 변화 등 실감나는 스토

리오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국가자연유산과 국가중요과학기술표본을 동시에 보유한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내 최대 규



해남공룡박물관 지하 1층에 가로 5m, 높이 10m 크기의 LED 스크린을 통해 알로사우루스 영상 및 화석을 전시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모 공룡박물관이다. 그동안 화석을 관람하는 방식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체험·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해 왔다.

올해에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알로사우루스 화석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 공간을 구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공룡박물관에 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도입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선진 박물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목포문화연대, “나전철기 ‘열린수장고’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손혜원 기부 무산 가능성 제기...투명한 행정 요구

목포문화연대가 목포시의 열린수장고 조성 예산 8억원 편성을 두고 절차적 문제와 과도한 집행이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2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목포시는 ‘나전철기 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나

전철기 기증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제안했으나 절차 미비로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열린수장고’ 조성 예산을 상정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목포시가 ‘나전철기 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명확한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대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세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다. 먼저 나전철기 소장품과 부동산 기부를 약속했던 손혜원씨와의 협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손혜원씨와 (재)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지난해 5월 나전철기 소장품 233점, 대의동 일대 부동산 9필지 및 건물 5개동을 기부하기로 목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박물관 건립 장소 변경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으나 목포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물관 건립 장소 결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점, ‘열린수장고’ 명목으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은 과도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목포시의회는 기부 받기로 한 500㎡(181.1평)의 부동산이 목포시민의 자산으로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나전철기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열린수장고’ 조성은 박물관 건립의 첫 단추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영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플랫폼 역할 ‘특독’

구직 단념·사회 단절 68명 참여

영암군의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난과 비정규직 일자리 등으로 구직을 단념하거나 사회와 단절돼 있는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암군이 공모에 선정됐다.

영암군은 ▲심리 상담 ▲진로 탐색 ▲찾아가는 희망버스 ▲청년 특강 ▲시내 토크 ▲외부 연계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자신감 회복, 구직 의욕 고취, 취업 활동 등을 지원했다. 올해 영암군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총 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5주 4시간의 단기에는 12명, 15주 120시간의 중

기에는 29명, 25주 200시간의 장기에는 27명이 참여했다. 현재, 단기 4명, 장기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수료자들에게는 기업 채용 및 지자체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과 일 경험 프로그램 연계 등 계속해서 지원과 관리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이어진다. 사업에는 18~34세 중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자립 준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북한이탈 주민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면 단기 50만원, 중기 100만원, 장기 200만원의 참여수당과 과정 이수·취업 인센티브도 별도 지급한다.

김동식 영암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영암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완도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93억 순차 지급

7천농가 지원...부당수령 점검도

완도군은 2일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농 직불금은 4천721 농가에 61억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천869농가에 32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실적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고자 관의 경작자·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정자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해 등록 취소·제한, 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파,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준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공익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신안군 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서 우수상

특교세 2천500만원 확보...사회서비스형 모델 인정받아

신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신안군은 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서비스를 일관 중장년층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를 위한 전문 민간 기관들과 협력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섬 지역의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모델로 인정받았다.

신안군과 전남사회서비스원(사)상생나루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섬·섬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중앙 사회서비스원 공모 사업으로 ▲도시락 밀반찬 배달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찾아가는 과학 미술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군의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양홍기자